

채변봉투와 기생충 검사 / 이은미

인일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2학년 때 나는 우리 반의 보건부장이 되었다.
보건부장의 가장 큰 역할은 해마다 실시되는 기생충 검사를 위한 채변봉투를 걷는 일이었다.

누가 냈는지 안냈는지 체크를 하며 걷은 개인별 채변 봉투를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기까지 커다란 반별 봉투에 모아서 며칠 동안 책상 옆에 걸어놓았는데 봉투 끝을 접고 창문을 열어놓아도 대변의 특유한 냄새가 솔솔 풍겨져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더구나 전교생이 가져온 개인별 봉투가 각 반마다 그렇게 모아져 있으니 어느 반을 가든지, 심지어 복도에서도 그 향기는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채변봉투를 걷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나는 얼른 도시락을 먹고 학교 뒷동산에 올라갔다.
며칠째 종일토록 전교에서 진동하는 변 냄새를 더이상 참기 어려워져 냄새가 나지 않는 곳으로 피하고 싶어하였다.
방송실에서 틀어주는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함께 잠시 변 냄새에서 해방되는 행복감에 젖었다.

5교시 시작을 알리는 예비종소리를 들으며 교실로 돌아왔더니 친구가 다급한 목소리로 채변봉투를 내라는 방송이 여러 번 나왔다고 알려주는 것이었다.
제출자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낼 수도 없었다며 빨리 담당 선생님께 가보라고 했다.

그 길로 우리 반의 채변봉투 꾸러미를 가지고 담당선생님인 교련선생님께 달려갔다.
평소 강력한 카리스마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포스를 가지신, 엄하기로 소문난 올드미스 선생님은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어디 가서 무엇 하다 이제 왔느냐고 야단을 치시면서 이미 전교생 것을 다 수합해서 기생충박멸협회에 보냈으니 우리 반 것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따로 직접 부치라고 하셨다.

여러 번 사정을 했지만 막무가내이신 선생님을 원망하며 속상한 마음으로 교실로 돌아와 우리 반의 채변봉투 모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고, 자랑스러운 딸을 둔 어머니께서 다음날 우체국에 가서서 기생충박멸협회로 우리 반 것을 따로 부치셨다.

내가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신 선생님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간직한 채 졸업을 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뜻밖에 그 교련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공립학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이 되어 학교 발령이 나기까지 몇 달간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보건교사로 발을 딛은 영등포구의 00중학교에서 2년째 근무하던

해에, 뜻밖에 그분을 동료 교사로 만나게 된 것이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인천인데 그 선생님은 S대 사대 출신으로 인천의 학교들에서 근무하시다가 서울로 전보발령을 원하셔서 우선 서울 남부의 그 학교로 발령을 받으신 것이었다. 선생님은 1년간 나와 함께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시 강남의 고등학교로 전근을 가셨고, 그 후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은퇴하셨다고 들었다.

'너희 반 것은 내가 알아서 따로 보내'라고 하셨던 무서운 선생님과 사제지간이 아닌 동료로 지내는 1년 동안 선생님은 제자인 내게 무척 잘해주셨지만 그분의 친절함을 따스하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1963년 복통을 호소하며 전주 예수병원에 내원한 9세 여아가 장폐색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던 중 1063마리의 회충이 장에서 나온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기생충 박멸사업!

심각한 빈혈과 영양실조의 원인이 되는 학생들의 기생충 감염률이 88% 이상으로 밝혀지며 구체적으로 시작된 기생충검사.

신문지를 펴놓고 성냥개비로 변을 찍어 비닐 속지에 넣고 다시 겉 봉투인 채변봉투에 넣어 제출하던 누구나 싫어하던 기생충 검사.

복도에 줄을 서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회충약을 받아먹고 난 다음날 죽은 기생충이 입으로 나와 콩나물인줄 알고 씹었다는 얘기, 재래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밑으로 죽은 회충이 나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등의 얘기가 난무하던 그 시절.

보건교사가 된 후 1996년까지인가 약 16년간 나도 학생들의 반별 채변봉투를 수합해서 행정실을 통해 기생충박멸협회로 보내고, 다시 그 기관에서 보내오는 결과를 통보해 주면서 '이물질, 된장 제출' 등으로 통보된 학생들을 불러 야단을 치는 일을 할 때마다 고교시절의 그 사건이 다시 불쑥불쑥 떠오르며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다.

제자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정식으로 보건실이나 보건교사가 없던 시대에 그 일을 맡으셨던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면서 말이다.

